

“의료·선교활동 산실…근대문화재 지정을”

호남지역 선교사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지리산 선교사 수양관’

선교사들, 한국 풍토병 극복 위해 노고단에 건립

지리산 생태계 보존 명목 한 때 철거 위기 겪기도

일제 강점기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갖가지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속에서도 호남지역에 파견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복음활동에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또 풍토병을 이기기 위한 고육책으로 1921년 지리산 노고단에 수양관을 건립한다. 이것이 일명 그레이엄 캠프다.

선교사로 파견되어 우리 민족과 나라 끝은 설움을 함께하며 3·1 운동 선언문 작성을 지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공학박사 출신 윌리엄 린튼 박사(한국명 인동·1891~1960).

엊그제 3·1절 기념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윌리엄 린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되었는데 그 역시 여름철 전염병 발병기에는 풍토병을 피해 어린 자녀와 함께 이곳에 거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양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자 설립한 학교를 자진 폐교하기에 이른다. 신홍중학교를 비롯한 수파아, 숭일기전, 영흥, 정명여학교 등이 그랬다.

또 일제의 탄압 속에 1940년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추방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도 지리산 수양관에 떠나게 된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던 선교사들은 광복 후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고 6·25 전쟁과 여순사건 등 빨치산의 공격으로 지리산 노고단 수양관이 모두 폐허가 되자 1962년 1,240미터

고지에 위치한 구례 문수리 왕시루봉에 수양관 12채를 다시 세웠다.

선교사들은 수양관 건립과 함께 선교·복음활동을 다시 시작해 광주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등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등 의료선교와 교육 선교 활동을 이어가며 호남지역 근대 문화의 산실을 이뤘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생명 연장 수단이었던 수양관이었음에도, 시대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들 호화불자 운운하는 반론과 편협된 시각에 묻혀 반세기 세월이 지나버렸다.

이에 선교사들의 우리 민족 사랑의 표본이었던 지리산 수양관의 흔적을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필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2007년 12월 (사)지리산기

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을 설립했다.

보존연합은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사 수양관을 문화재로 지정될 말 한 총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특히 왕시루봉 12채 선교사 수양관은 각 국의 선교사들이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띠집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건축이 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수양관으로 건축학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존연합은 선교사 수양관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1억 원을 들여 (사)도코모코리아(근대문화유산보존회)와 1년여의 조사연구를 끝냈고 지난 해 11월에는 62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출간



지리산에 인동 부부와 네 아들. 인쪽부터 윌리엄, 드와이트, 휴, 유진.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은 풍토병을 극복하기 위해 지리산 노고단에 선교사 캠프를 마련했다. <한남대 제공>

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NGO 단체들은 물로 일반인까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7년 8월 지리산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철거위기에까지 갔았는데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격동적인 근대사에 있어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바로 알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의 장소이다. 들어 없애는 것보다 보존하고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재조명되고 계승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오정희·(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



봄맞이 원기회복! 메기탕이 최고

35년 한자리만 고집…얼큰·칼칼 ‘맛이 깊은집’

■화순군 능주면 ‘영벽정식당’

눈을 말갛게 씻어주는 시골 풍경과 구수한 인심이 최고의 양념이다.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영벽정식당(업주 주수자)은 영벽정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면서 맛깔스러운 메기탕을 먹을 수 있는 곳.

잔잔하게 흐르는 영벽강 물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는 헛살의 아름다움에 눈이 먼저 즐겁다. 또 50년이 넘은 식당 건물의 에스토리들이 마치 고향 집에 든 것처럼 식객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맛의 비결은 모든 양념과 재료를 직접 재배하고, 싱싱한 메기만을 골라 요리를 하는 주인장의 정성에 있다. 화순 일대에서 매일 공수받은 20cm 내외의 살아 있는 메기만을 재료로 쓴다. 팔팔뛰는 메기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국물을 감동 그 자체다.

직접 닦은 된장으로 메기의 비릿함을 없애고, 인근 밭에서 키워, 겨우내 말린 배추 시래기로 국물을 낸다.

여느 집에선 메기탕에 무청 시래기를 넣는데 씹는 맛이 질겨, 이 집은 부드러운 가을 배추를 고집한다. 시래기와 낙은 국물을 갖지은 밥에 비벼 먹어도 별미다.

무엇보다도 35년간 한 자리에서 메기탕을 끓여온 주인장의 내공에 믿음이 같다.

밀반찬도 정갈하다. 잘 쑤아 시원한 맛이 나는 배추김치, 총각김치와 매실장아찌, 각종 나물, 바삭하게 부친 파전 등 모두 맛보려면 것가리가 바쁘다.

인근에서 사육한 닭을 골라 간장, 고추장, 마늘, 양파 등으로 맛을 낸 닭볶음은 맵지도 않고, 꽉꽉하지도 않아 아이들에게 권할 만 하다. 메기탕 중 2인5천원, 소 2만원. 닭볶음 4만원. 문의 061-372-1210.

/글·시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찾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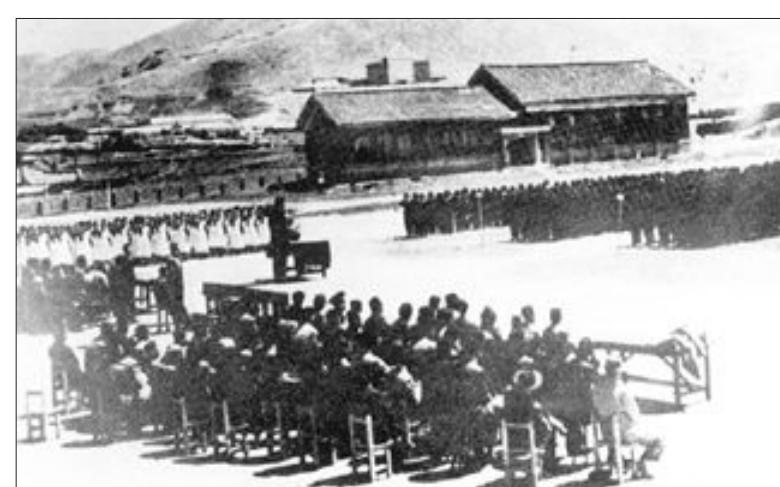


<닭볶음>

봄 날

추억의 한컷

박선자



배움 열정에 희망 ‘무력무력’

6·25 한국전쟁 후 폐허속에서 도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식지 않았던 것 같다. 1954년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전남대 의과대학 입학식장면.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 가능)

빌딩(임대용·투자용)

-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 매가 19억

- 보증금 1억6천만 원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

산증 재산리모델링

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증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02-1772-7001 010-602-23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 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 심

TEL : 010-3616-8698

Km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 영 희
TEL 062-364-8700
H.P 010-4608-3700

예판부

지 역 소재지 대(㎡)/면/동/층/호 갈망가 소지가 비고

광산구 청개울동 655/153 1794.4/3층 7호 10억3천만원

남구 월상동 513/321 1283.3/4층 4호 8억5천만원

동구 금남동 264/928 781평 3호 9억5천만원

금남동 317/1220 1794.8평 1호 12억3천만원

신수동 182/115 521평 2호 2천만원

서구 대동 320/1188 1044.2평 5호 8억7천만원

동구 금남동 175/237 2호 45.2평 1호 7천만원

북구 디지털 619/56 1044.2평 1호 10억5천만원

동구 대동 200/605 2호 45.2평 1호 10억5천만원

서구 혼민동 85평 2호 45.2평 1호 10억5천만원

서구 혼민동 167평 525평 2호 3천만원

서구 혼민동 168평 167평 525평 2호 3천만원